

축사

# 녹색 성장의 주축으로서 원자력에 기대

김 중 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존경하는 구한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님, 이종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님,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님, 그리고 멀리서 오신 토미히로 타니구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님, 윌리엄 버찰 미국원자력학회(ANS)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24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식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1978년 4월 29일에 한국의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한 것을 기념하여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간 연차대회는 원자력산업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 인류를 위한 원자력 기술의 다양함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관심사와 현안 문제에 대해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 연차대회가 국제적으로 더욱 관심 받는 행사로 발전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 원자력이야말로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전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원자력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실로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지 불과 30여년만에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당당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형원전 개발 등 기술 자립을 비롯하여 원전 설계, 설비 제작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원전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계가 인화단결하여 녹색 성장의 주축으로서 국민들에게 풍요롭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원자력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원자력 가족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자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확대되어 2030년까지 700조원이라는 거대한 원자력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이야말로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원자력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국원자력기술상과 국제협력상, 원산 공로상을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